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2023. 4.

《2023. 3. 20.(월) ~ 3. 26.(일) 일본》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정책연수 결과 보고



전 라 북 도 의 회
〔환경복지위원회〕

Contents

목 차

Ⅰ. 연수개요 1
1 목 적 1
2 현 황 1
3 내 용 1
4 주요일정 2
5 연수자 명단 3
Ⅱ. 연수국가 일반현황 4
1 일 본 4
Ⅲ. 방문지역 일반현황 7
1 홋카이도 7
2 도 쿄 10
Ⅳ. 국외연수 내용 및 시사점 12
1 모에레누마공원 12
2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17
3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24
4 오타루 운하 28
5 도야 호 30
6 기타 방문지 32
Ⅴ. 종합의견 36
Ⅵ. 연수후기 40
1 소 감 40
2 총 평 46
〈참고〉 언론 보도자료 49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 보고

Ⅰ 연수개요

1 목 적

○ 일본의 환경 기초시설과 복지 관련 행정기관 등을 견학하고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정책 개발과 성숙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 선진 우수사례 국외연수를 통해 환경복지위원들의 창의적 인식개선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기여

2 현 황

○ 연수기간 : 2023. 3. 20.(월) ~ 3. 26.(일) [6박 7일]

○ 방 문 국 : 일본(홋카이도, 도쿄)

○ 방 문 단 : 11명

- 의 원(7) :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7명
- 직 원(4) :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직원 4명

3 내 용

○ 쓰레기 처리장을 활용한 생태공원 개발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모에레누마 공원 방문 및 전북도 활용방안 모색

○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이해 및 사례 비교를 위한 삿포로시청 보건복지국 방문

○ 람사르 협약 습지이자 철새 도래지인 우토나이 호수 방문을 통해 전북도의 생태 보존 정책 구상

4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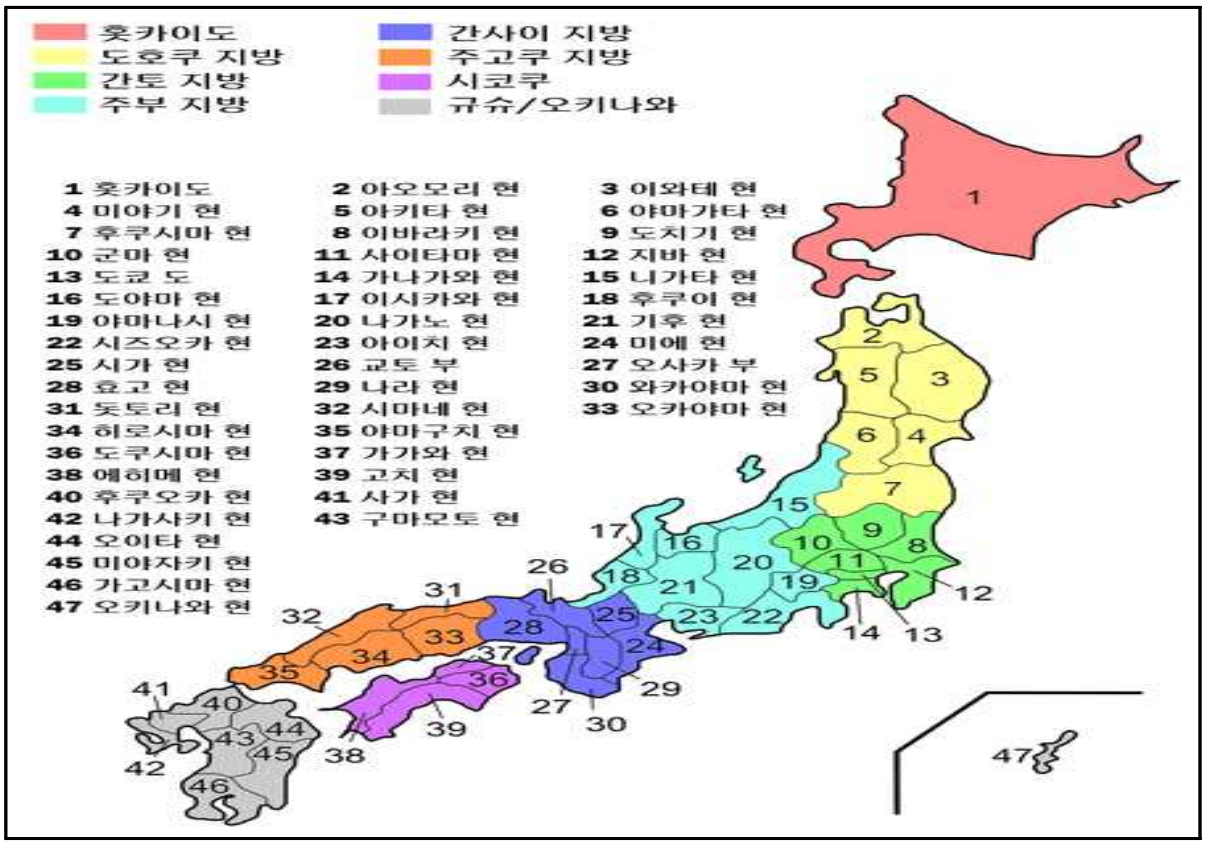
일자	방문지역	일 정	비 고
2023 3. 20. (월)	전주, 인천 ⇒ 치토세, 노보리베츠	○ 도의회 집결 후 출발(04:00) ○ 인천 국제공항 집결・출발(10:05) (KE765) ○ 일본 신치토세 공항 도착(12:45) ○ 노보리베츠 이동 ○ 노보리베츠 숙박	1일차
3. 21. (화)	노보리베츠, 하코다테	○ 현지 시찰 - 에도 지다이무라 - 하코다테 모토마치(구하코다 공회당, 하리스트 정교회 등) ○ 유노가와 숙박	2일차 *일본 휴일
3. 22. (수)	삿포로, 도야	○ [기관방문] 모에레누마 공원 (16:00) ☞ 쓰레기 처리장 활용 공원 ○ **친환경 선진지 탐방 (니시야마 분화구, 도야호 등)** ○ 삿포로 숙박	3일차
3. 23. (목)	삿포로, 토마코마이	○ [기관방문]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09:30) ☞ 삿포로시청의 보건·복지분야 담당국 ○ [기관방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15:00) ☞ 유명한 철새 도래지, 람사르 협약 습지 ○ **친환경 선진지 탐방 (오타루 운하, 오도리 공원 등)** ○ 삿포로 숙박	4일차
3. 24. (금)	삿포로, 도쿄	○ 치토세(치토세/09:40) → 도쿄(나리타/11:05) 이동 ○ 현지 시찰 (아사쿠사 관음사 등) ○ 도쿄 숙박	5일차
3. 25. (토)	도쿄	○ 현지 시찰 (오다이바 해상공원 등) ○ 도쿄 숙박	6일차
3. 26. (일)	도쿄 ⇒ 인천, 전주	○ 나리타 국제공항 이동・출발(13:55) (대한항공 KE704) ○ 인천 국제공항 도착(16:30) ○ 도의회 도착(19:30)	7일차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업무내용
계		11명		
환경복지 위원회 (7명)	위원장	이 병 철	남	국외정책연수 총괄
	부위원장	임 승 식	남	친환경·폐기물 분야 정책 및 현황 조사
	위 원	강 동 화	남	친환경·폐기물 분야 정책 및 현황 조사
	위 원	김 만 기	남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 및 현황 조사
	위 원	박 용 근	남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 및 현황 조사
	위 원	윤 정 훈	남	생태·수계 분야 정책 및 현황 조사
	위 원	황 영 석	남	생태·수계 분야 정책 및 현황 조사
환경복지 전문위원실 (4명)	팀 장	김 평 곤	남	연수 진행 총괄·인솔
	주 무 관	김 태 균	남	각종 기록관리, 위원 보좌
	주 무 관	이 대 희	남	각종 자료 수집, 위원 보좌
	주 무 관	이 환 희	남	연수 일정 관리, 위원 보좌

Ⅱ 연수국가 일반현황

일 본



▲ 일본 지도 [출처-위키백과]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큰 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이들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전체 면적은 37만 7973㎢이며, 독일(35만 7386㎢)보다 조금 크다.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일본은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4개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섬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났다. 일본의 인구는 약 1

억 2,600만 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다.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인 간토 지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이며, 이 지역에만 4,350만 명(일본 전체 인구의 34.5%)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이후 1947년에 제정・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성립된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고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천황과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참의원(상원)・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공존하고 있다. 현재의 천황은 나루히토, 국회의 집권당은 자유민주당이며 내각총리대신은 기시다 후미오이다.

경제력은 명목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크다(2017년 기준). 또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이 많으며 다섯 번째로 수입이 많은 나라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부터 2010년 중화인민공화국에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20여 년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총생산이 높았으며 1993년 당시에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도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나 버블 붕괴 이후(198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하락세에 있어 현재는 2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인간개발지수는 2015년 기준 세계 20위에서 2016년 세계 17위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G7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이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 및 교전권을 포기하였으나 국토의 방위와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위대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및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졸자 초봉은 2010년 기준으로 약 235만 엔으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정도이며 2022년 기준 OECD, NUMBEO가 조사하는 삶의 질 지수에서도 아시아에서 1위이다. 세계에서 이주대상국으로 인기가 많은 나라이며 2020년에는 국제 송금 서비스를 다루는 remitly에서 조사한 가장 이주하고 싶은 국가 순위에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US news & world report 또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캐나다에 이어 일본을 2위로 선정했다.

Ⅲ 방문지역 일반현황

1 홋카이도

○ 일반현황

홋카이도(北海道, ほっかいどう)는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에 위치한 도(道)이자, 일본 열도를 이루는 4개 주요 섬(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중 하나로서 일본 북단에 위치한 큰 섬이다. 도청 소재지는 삿포로시이다. 동쪽과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관할하는 사할린섬과 쿠릴 열도가 있다.

16세기 이후 일본인들이 섬의 남쪽 끝에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당시까지도 홋카이도는 아이누족으로 알려진 섬의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외국 영토로 여겨졌다.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도쿠나이 모가미, 린조 마미야 등의 지리학자들이 섬을 탐험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통치는 17세기까지 오시마 반도에 국한되었다. 17세기에 일본인 정착민들이 홋카이도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본인과 아이누인 사이에 종종 충돌과 반란이 일어났다. 1869년 메이지 유신 이후 에조는 일본에 공식적으로 병합되었고 홋카이도(北海道)로 개칭되었다. 이후 일본이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식민화하면서 아이누인들은 땅을 빼앗기고 순식간에 일본에 동화되어 사라져 갔다.

홋카이도는 47개 도도부현 중 유일한 도(道)이며 브랜드종합연구소에 의하면 도도부현 매력도 순위에서 2019년 기준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관광산업, 상품구매 의욕도에서도 1위를 차지

하고 거주 의욕도에서는 3위를 차지해 각 의욕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경제

홋카이도 내 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 산업이 3.3%, 2차 산업이 22.4%, 3차 산업이 76.7%이다(2000년 기준). 일본 전체와 비교해서 1차 산업 및 3차 산업의 비율이 높고, 2차 산업, 특히 제조업의 비율이 낮다.

그러나 농업은 홋카이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총 경작 가능한 땅의 4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다.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양파, 호박, 메밀, 우유, 소고기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이다. 또한 홋카이도의 삼림은 또한 일본 삼림의 약 22%를 차지해 임업이 상당한 규모를 이룬다. 그 밖에도 홋카이도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전국 1위이다.

관광업은 홋카이도의 중요한 산업으로 특히 시원한 여름 덕분에 본토의 더위와 습기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겨울에는 스키를 포함한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 주요 도시

- **삿포로시**

  홋카이도 최대의 도시이자 계획도시이다. 삿포로역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어 여행하기도 편리하다. 이 도시의 랜드

마크는 오도리공원이다. 오도리공원에서는 삿포로 눈 축제를 포함한 여러 축제가 사계절 내내 열리며, 시내의 중심가에 위치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삿포로 TV타워도 오도리공원 안에 있다. 저녁 시간에 이 타워에 오르면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삿포로시의 남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조잔케이 온천마을이 위치해 있다.

- **오타루시**

  삿포로 북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근대 문물의 영향을 받아 도시 전체가 유럽풍의 느낌이 나며 작고 아기자기할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최대의 오르골당이 위치해 있어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이다. 특히 물건을 나르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인 오타루 운하는 밤낮 할 것 없이 정말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하코다테시**

  홋카이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홋카이도 내에서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다. 특히 하코다테 산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밖에도 전 영국 영사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모토마치 거리 등도 유명하다. 도시 북쪽에는 호수가 아름다운 오오누마 국정공원이 있으며 더 북쪽에는 화산 폭발로 분화구 한쪽이 날아간 특이한 형태의 고마가타케 산이 위치해있다.

- **노보리베츠시**

홋카이도 남부에 있으며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주요산업은 관광업과 공업이다. 시의 남서부 해안을 따라 무로란시로 이어지는 공업지대가 있고, 홋카이도에서 가장 발전한 중공업지대인 무로란공업권에 속하여 발전해 왔다.

2 도 쿄

○ 일반현황

도쿄도는 일본의 수도이다. 혼슈 동부에 있는 도쿄 광역권의 핵심 도시이자 일본의 중심지이다.

도쿄도만 놓고 보면 인구는 약 1,400만 명이며, 이 중 구(舊) 도쿄시 지역인 23개 특별구의 인구는 약 970만 명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 수도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산출 기준에 따라 2020년대 기준 약 4,350만 명까지 올라간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도권은 세계 최대의 교통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고, 세계에서 다국적 대기업의 본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먼 과거에는 무사시노쿠니의 도시마군(豊島郡)이었지만, 11세기 헤이안 시대 후반부터 에도(江戸)라고 불렸다. 전국 시대(15~16세기)까지는 작은 해안 마을이었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었고(1603년), 간척과 함께 도시를 세우고 상업을 발전시키면서 일본의 핵심 도시가 되었다. 당대에는 계속 에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868년 에도를 일컬어 도쿄라 한다는 조서

를 내려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 경제

도쿄는 제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집적도, 그리고 여객용 철도 교통 측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2014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도쿄 수도권의 경제 규모 GDP(국내총생산)는 1조 6,1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금융 분야에 있어 도쿄에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이은 세계 4위의 증권 거래소인 도쿄증권거래소가 있다. 덕분에 도쿄 마루노우치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중 한곳에 해당한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 도쿄는 제조업 공장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 도시 중 하나이며, 21세기에 들어 첨단 산업이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문화 산업적으로도 도쿄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글로벌 만화 산업의 성지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아키하바라가 있고, 게임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도 발달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역시 가장 많이 밀집된 도시다.

Ⅳ 국외연수 내용 및 시사점

1 모에레누마 공원

○ 방문목적

친환경 공원이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일년내내 다양한 행사로 여행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에레누마 공원 탐방 및 조성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도내 환경 자원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23. 3. 22.(수) 16:00
- 면 담 자 : 모에레누마 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
- 주　　소 : 삿포로시 히가시구 모에레누마코엔 1-1
- 홈페이지 : www.moerenumapark.jp
- 진　　행 : 공원 안내 영상 시청 →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내　　용

  - 공원 안내 영상 시청(설립 과정, 운영현황 등)
  - 공원 주요시설 견학 및 질의답변

○ 주요내용

<모에레누마 공원 현황>

- 모에레누마 공원은 삿포로 시가지를 공원과 녹지로 둘러싸는 '환형 그린벨트 구상'의 거점공원으로 계획된 삿포로시의 종

합공원임

-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가 기본 설계를 맡아, ‘공원 전체를 하나의 조각품으로 만들겠다’는 컨셉으로 1982년에 착공해 2005년에 개장했음. 광대한 부지상에 기하학적 형태를 풍부하게 사용한 산과 분수, 놀이기구 등의 시설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해 자연과 예술이 한 데 어우러진 경관을 즐길 수 있음
- 쓰레기 처리장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실내시설인 유리 피라미드에는 지역 고유의 자연 에너지인 눈을 활용한 냉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음
- 공원 주요시설

: 유리 피라미드, 모에레야마(모에레산), 플레이 마운틴, 테트라 마운드, 바다 분수, 아쿠아 플라자 등



▲ 모에레누마 공원 안내지도

○ 질의내용

- 모에레누마 공원의 규모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 공원 부지는 189ha에 달하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는 모에레야마(모에레산), 놀이터, 15개의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야외무대 등이 있음. 특히, 모에레산은 삿포로시 북동부에 위치한 유일한 산으로 지역 랜드마크의 기능도 하고 있음

-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해 만든 공원이라고 들었는데 공원 부지중에서 쓰레기 매립 부지의 비중은? 향후에도 매립된 쓰레기는 옮길 계획은 없는지?

☞ 현재 공원 부지 대부분이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음. 향후 매립된 쓰레기를 옮길 계획은 없음

- 매립 쓰레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 등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공원 여러 지점에 메탄가스 배출 장치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시 사 점

- 과거에 쓰레기 처리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원 전체가 깨끗하고 잘 구획화되어 있어서 지역의 관광명소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한 친환경 공원이었음
- 삿포로의 지역 고유의 특징인 많은 눈을 활용한 냉방 시스템 및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 시설에 활용한 점은 탄소저감 실천 및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심속 공원의 선진 사례로 향후 도내 친환경 공원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매립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주변지역 지하수검사, 발생가스관리(메탄가스, 이산화탄소혼합가스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 등 사후관리가 의무사항이며, 현재 이러한 환경안전 관리는 양국 모두 동일한 조건임

-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대표적 혐오시설을 사용종료후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활용하는지의 관점에서는 전북의 경우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22년 9월 기준 전북 도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8개 시군 27개소 503,477㎡ 임

- 전북도의 경우에는 사용종료된 매장 27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된 상황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곳, 체육시설 3곳, 공원 3곳, 매립장 1곳 정비중임

- 앞으로 도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도 환경행정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임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포집공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도내 방치되어있는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 물질인 매립가스를 포집해 대기 중 확산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전북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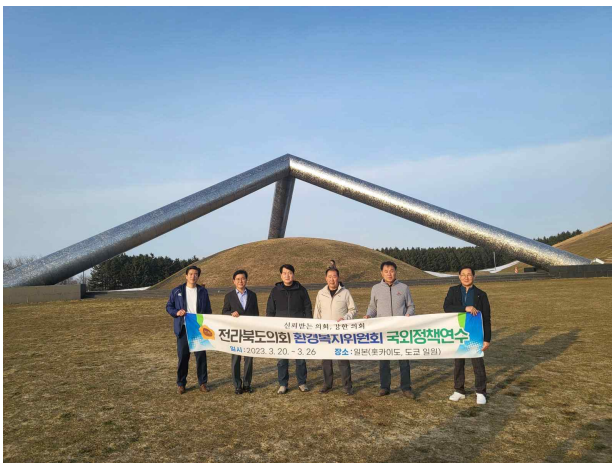
안내영상 시청



공원 시찰(유리 피라미드 주변)



공원 시찰(플레이 마운틴)



공원 시찰(테트라 마운드)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2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 방문목적

- 전북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삿포로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파악 및 우수 사례 비교를 통한 전북도 정책 반영 검토
- 삿포로시 지역복지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방향 이해 및 벤치마킹

○ 방문개요

- 일　　시 : 2023. 3. 23.(목) 09:30
- 면 담 자 : 시부야 요시오 보건복지국장, 유타니 요시후미 사업관리계장, 와타나베 토시히로 취업·상담 지원계장, 야부타니 노부히코 급부관리계장, 타케마사 유키히로 사업관리담당 등
- 주　　소 :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1 니시2
- 홈페이지 : www.sapporo.jp
- 진　　행 : 참석자 소개 및 업무현황 청취 →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사진 촬영
- 내　　용 : 삿포로시 장애인 복지 정책(장애인 취업시설, 돌봄 서비스 등)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 질의내용

- 삿포로시 장애인 복지 예산 규모는?

☞ 2022년도 장애 복지 예산액은 약 1,092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엔 증가했음

- 삿포로시 장애인 유형별 현황은?

☞ <삿포로시와 전라북도 장애인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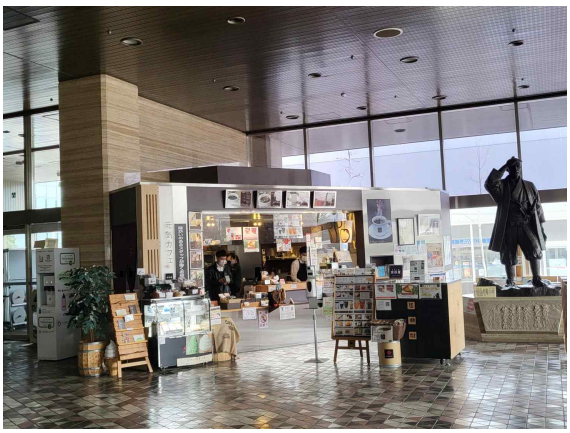
장애 유형	삿포로시('21.3월)	전라북도('22.12월)
신체 장애	82,359	112,662
지적 장애	20,498	13,883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정신 장애	31,485	5,469
합 계	134,342 (삿포로시 인구의 약6.8%)	132,014 (전라북도 인구의 약7.4%)

*자료-삿포로시, 전라북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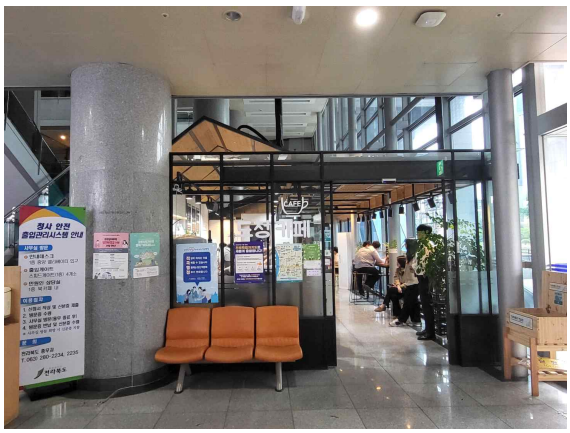
※ 신체 장애인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2019년 83,780명→2021년 82,359명)인 반면에, 같은 기간 지적·정신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세임(지적 장애 : 19,416명→20,498명 / 정신 장애 : 28,895명→31,485명)

• 삿포로시청의 장애인 취업시설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지하철 오도리역내에 장애인 제작품을 판매하고 있고, 시청사 1층 및 시내 4개소에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건강 카페(사진)를 운영하고 있음



▲ 삿포로시청사 1층 건강 카페



▲ 전북도청사 1층 아이갓에브○○ 카페

● 일본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현황은?

☞ **<장애 복지 서비스 체계>**

* 개호 : 간병과 수발을 의미

***개호 형태**	**주택 개호**	집에서 입욕, 배설, 식사 개호
	방문 간호	심한 지체부자유자 또는 심각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행동상 현저한 곤란을 가지는 사람에게 집에서 입욕, 배설, 식사의 개호. 외출시에 있어서 이동 지원, 입원시 지원 등
	동행	시각 장애인 외출시 정보 제공 및 간호
	행동	자기 판단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행동할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외출 지원
	중증장애인 등 포괄 지원	개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거택 개호 등 복수의 서비스를 포괄적 실시
	단기 입소(숏스테이)	단기간 시설에서 입욕, 배설, 식사의 개호 등 실시
	요양 개호	의료와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료 기관에서 기능 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개호 및 일상생활의 돌봄 실시
	생활 개호	입욕, 배설, 식사의 개호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기회 제공
	시설 입소 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에게 야간이나 휴일 입욕, 배설, 식사의 개호
훈련 등 형태	**자립생활 원조**	독신 생활에 필요한 이해력·생활력 등을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택 방문이나 수시의 대응에 의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 실시
	공동생활 원조(그룹홈)	야간이나 휴일, 공동 생활을 실시하는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의 개호, 일상생활상의 원조
	자립훈련(기능훈련)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신체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실시
	자립훈련(생활훈련)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생활능력 유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지원
	취업 이행 지원	일반 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지원
	취업 계속 지원(A형)	일반 기업 등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실시
	취업 계속 지원(B형)	일반 기업 등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실시
	취업 정착 지원	일반 취업으로 이행한 사람에게 취업에 따른 생활면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실시

*자료-삿포로시 제공

• 장애인 취업 계속 지원 A형과 B형의 차이점은?

① 취업 계속 지원 A형

: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움 + 고용 계약에 근거하는 취업이 가능한 사람(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보장)

② 취업 계속 지원 B형

: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움 + 고용 계약에 근거하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생산 활동의 대가로써 공임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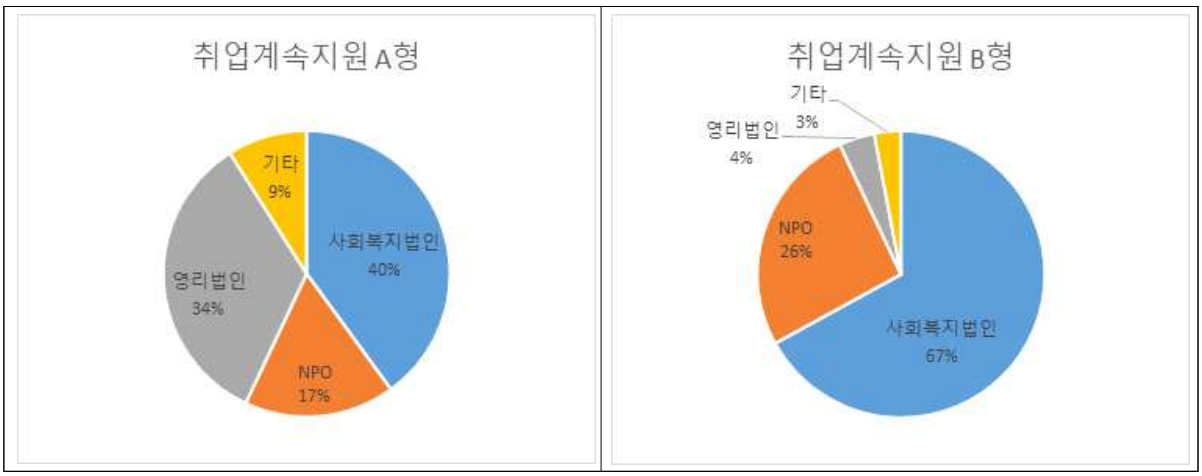
•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① 취업 계속 지원 A형

: 사회복지법인 40%, NPO 17%, 영리법인 34%, 기타 9%

② 취업 계속 지원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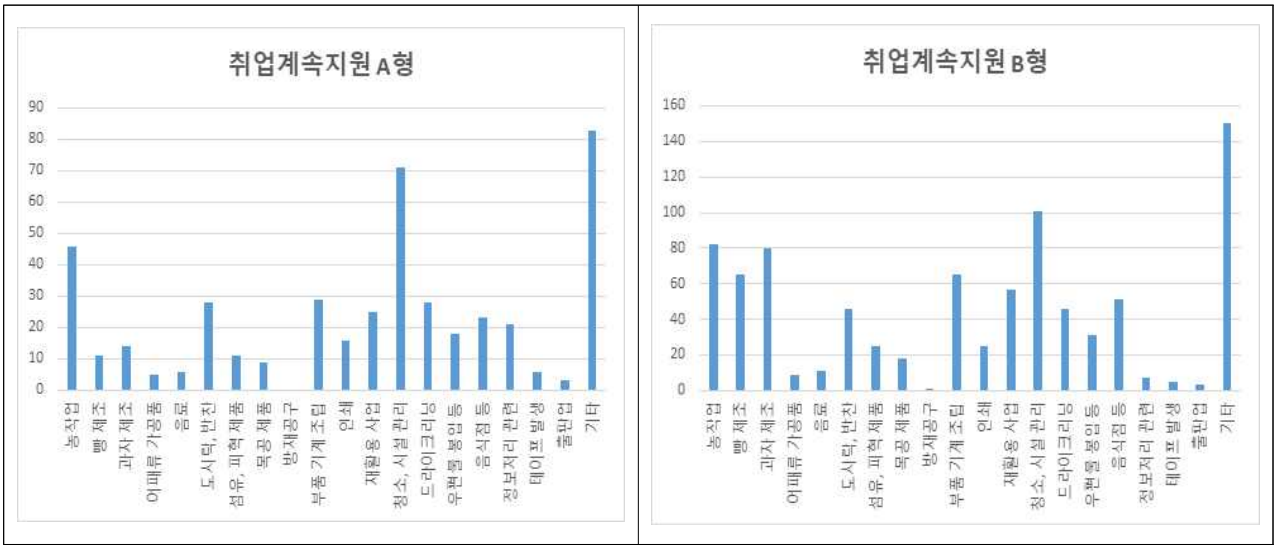
: 사회복지법인 67%, NPO 26%, 영리법인 4%, 기타 3%



*자료-삿포로시 제공

•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의 주요 생산활동 내용은?

☞ 청소·시설관리, 농작업, 과자제조, 부품·기계조립 분야가 많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삿포로시 제공

• 장애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비용 부담은 있는지?

☞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비용 무료 및 부담 상한액이 있음

소득 구분		부담 상한액
생활보호		0엔
저소득(시민세 비과세)		0엔
일반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아 (세대 구성원의 시민세 *소득 할액의 합계가 28만엔 미만)	4,600엔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및 20세 미만의 시설 입소자 (세대 구성원의 시민세 *소득 할액의 합계가 16만엔 미만)	9,300엔
	상기 이외	37,200엔

*자료-삿포로시 제공

* 소득 할액 28만엔 미만 : 가구 수입 약 890만엔 이하
  소득 할액 16만엔 미만 : 가구 수입 약 600만엔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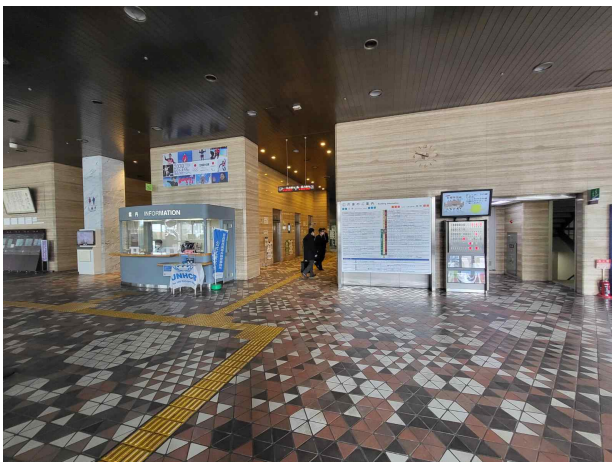
○ 시 사 점

- 청사 내에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는 점은 우리 전북도청사 1층에 있는 카페(아이갓에브◯◯)와 유사했는데(p18 사진 참조), 시민들이 자주 드나들고 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에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삿포로시 보건복지국장의 설명이 인상 깊었음
- 일본의 장애 복지 서비스처럼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및 생활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을 구분하여 개개인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문사진



삿포로시청 정문



청사 내부(로비)



참석자 소개 및 업무현황 청취(보건복지국장)



질의답변 시간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3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 방문목적

-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람사르 협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의 운영현황, 주요시설 및 서비스 등 비교 견학
- 전북도의 산림 및 해안을 활용한 생태 학습·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방문개요

- 일　　시 : 2023. 3. 23.(목) 15:00
- 면 담 자 : 토마코마이시 환경생활과 담당 오노데라, 호수 관리 사무소 관계자 등
- 주　　소 : 토마코마이시 059-1365
- 홈페이지 : hokkaido-tomakomai.com/utonaiko/
- 내　　용 : 우토나이 호수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시찰

○ 주요내용

- 우토나이 호수(면적 275ha, 평균수심 0.6m)는 많은 종류의 조류를 볼 수 있어 관광객과 홋카이도민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명소임
- 호수 주변이 풍부한 습지로 둘러싸여 있어 동식물의 보고이자 야생조류의 낙원으로 불리우며 270종 이상의 조류가 확인되고 있다고 함
- 일본의 국가 지정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4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임
- 3층짜리 조류 관찰 건물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철새들을 쾌적하

고 적절한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우토나이 호수와 호수 주변에서 자연 산책·관찰 등 1년 사계절 동안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음

- 오리류나 백조류 등 철새에 있어서 중요한 중계지가 되고 있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귀중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음

참 고

▣ 람사르 습지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 보호

○ 2021년 현재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람사르습지로는 대암산 용늪(1997), 창녕 우포늪(1998), 신안 장도 산지습지(2005), 순천만·보성갯벌(2006),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2006), 울주 무제치늪(2007), 태안 두웅습지(2007), 전남 무안갯벌(2008),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2008), 오대산국립공원습지(2008),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008),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습지(2009), 충남 서천갯벌(2009), **전북 고창·부안갯벌(2010)**, 제주 동백동산습지(2011), **전북 고창 운곡습지(2011)**, 전남 신안 증도갯벌(2011), 서울 한강 밤섬(2012), 인천 송도갯벌(2014), 제주 숨은물뱅듸(2015), 한반도습지(2015), 순천 동천하구(2016), 안산 대부도 갯벌(2018), 고양 장항습지(2021) 등 총 24곳

○ 시 사 점

- 습지는 수질오염 정화, 홍수발생 완화,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형임. 인간을 위한 개발로 인해 습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습지를 보존하여 얻는 긍정적 효과들에 주목하며 람사르 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습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우리 전북도내에도 고창·부안 갯벌, 고창 운곡습지 등의 습지가 있는데,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개발에만 치중하지 않으며 습지 보전 및 생태자원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가는 철새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연을 보전하며 나아가 생태관광 자원화한 우토나이 호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었음
- 전북도는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1시·군 1대표 관광지(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하드웨어'가 준비되어있는 만큼 대표 관광지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우토나이 호수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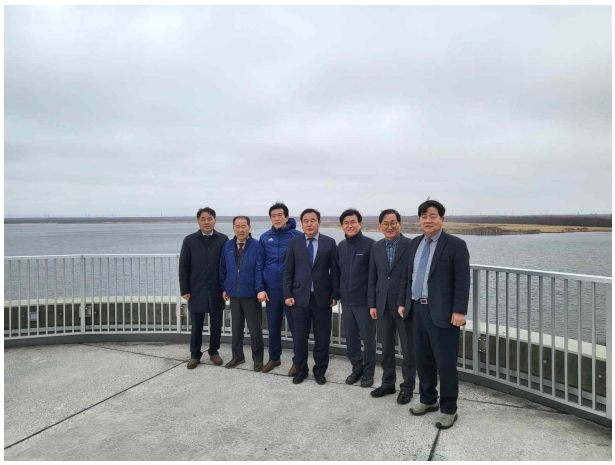
우토나이 호수 입구



조류 관찰관



조류 관찰관 안내도



조류 관찰관 외부(옥상) 관찰지



우토나이 호수 철새 서식지

4 오타루 운하

○ 방문개요

- 일　　시 : 2023. 3. 23.(목) 11:00
- 주　　소 : 오타루시 미나토마치 5
- 홈페이지 : city.otaru.lg.jp

○ 주요내용

- 오타루시의 상징인 오타루 운하는 1923년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진 운하인데 항만시설로 사용되었다가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매립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 사이에서 운하를 보존하자는 의견이 있어 10년간의 논쟁 끝에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함
- 운하 주변에는 오래된 석조창고와 은행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내부는 리모델링하여 식당과 술집, 기념품점, 공방 등이 영업을 하고 있음
- 운하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용 보트도 운영하고, 유리공예, 오르골당 등 공예품이 유명해지면서 오타루 운하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홋카이도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났음

○ 시 사 점

-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오타루 운하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하고, 옛 건물들의 외부는 유지하며 내부를 정비·개선하여 상업시설 등 관광 자원화시킨 점은 전북도가 향후 관광정책 발굴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만한 민관 협력 사례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오타루 운하를 둘러볼 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쁘지 않아 보였고, 쓰레기가 떠다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오타루 운하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둑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문사진



운하 입구



운하 시찰



운하 시찰



오타루 항구 인근

5 도야 호

○ 방문개요

- 일　　시 : 2023. 3. 22.(수) 10:00
- 위　　치 : 홋카이도 아부타 군 도야코정과 우스 군 소베쓰정의 경계
- 규　　모 : 총 둘레 50km, 최대 수심 180.0m, 평균 수심 117.0m, 저수량 8.19㎦, 수면 표고 84m

○ 주요내용

- 도야 호는 일본 홋카이도 아부타 군 도야코정과 우스 군 소베쓰정에 걸쳐 있는 호수임. 시코쓰토야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2008년 G8 정상회담 개최지임
- 호수 안에 4개의 섬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칼데라 호수이며 2000년에 분화한 유수산의 새로운 분화구에서는 지금도 활발하게 분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음
- 맑고 깨끗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와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유람선 투어 명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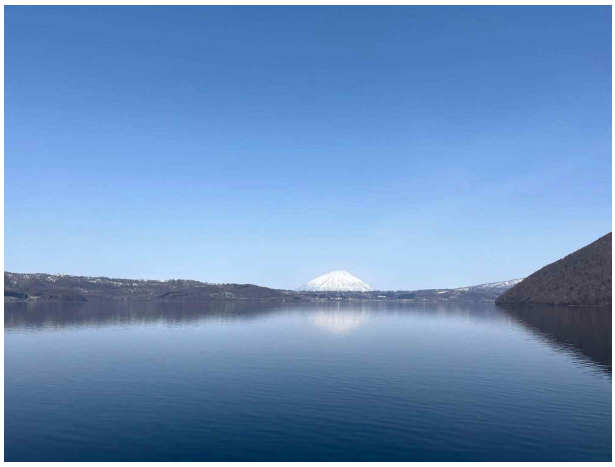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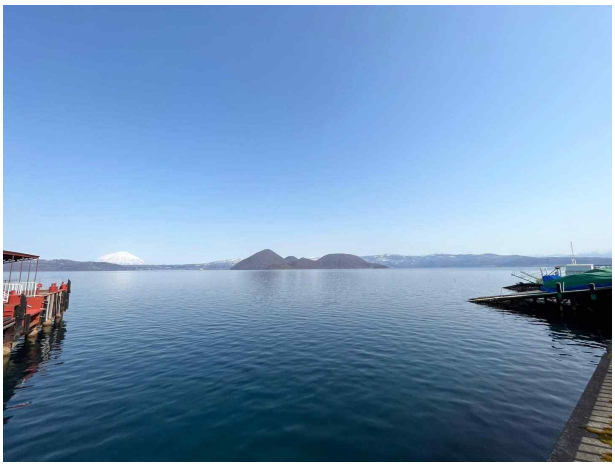


▲ **도야 호 유람선 선착장, 유람선** [출처-네이버 블로그]

○ 시 사 점

- 겨울에도 결빙되는 일이 없으며 일년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이 부러울 만큼 좋아 보였음. 전북도 임실의 옥정호에 있는 붕어섬 생태공원이 지난 3월 출렁다리의 정식 개통과 함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문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도야 호(요테이산 방향)</td><td>나카지마 섬</td></tr>
</table>

6 기타 방문지

❑ 노보리베츠 지고쿠다니

◉ 주요내용

- 지고쿠다니는 일본 홋카이도의 노보리베츠시에 있는 활화산 분화구로, 그 안에 수많은 유황이 모이고 여러 번 화산 폭발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 지형임. 유황 냄새가 자욱하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분화구에서는 증기가 아직도 나옴. 이곳은 지옥에 가면 이곳과 같을 것이라고 해서 지옥 계곡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함. 매분 3,000리터의 온천수가 나오는 곳임
- 지고쿠다니 온천은 온천에서 목욕하는 원숭이와 간헐천으로 유명함. 원숭이가 목욕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원숭이를 보호・관찰하는 원숭이공원에서는 300마리 정도의 원숭이를 기르고 있고, 전용 노천탕도 갖추고 있음

◉ 방문사진





❑ 하코다테 모토마치 구시가(舊市街)

◉ 주요내용

-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에 있는 옛날 거리임. 일본 최초의 국제 무역항인 하코다테의 중심 거리답게 서양과 일본의 건축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들이 많음
- 대표적인 것으로는 1862년 러시아 신부 니콜라이가 세운 러시아 정교회 건물 '하리스토스정교회'가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은 1916년에 비잔틴 양식으로 개축한 것임. 또 궤도 열차역 근처에는 지방박물관과 1910년에 건축된 목조 2층의 옛 하코다테구공회당, 모토마치공원이 있음. 공회당 건물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있어 경치를 감상하기에 좋음

◉ 방문사진



모토마치 안내판



구(舊)공회당 건물



모토마치 시찰



하코다테시(市) 야경

❑ 아사쿠사 관음사(센소지)

◉ 주요내용

-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아사쿠사에 있는 절로 도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찰임
- 628년 스미다 강에서 백제인 히노구마 어부 형제가 던져놓은 그물에 걸린 관음상을 모시기 위해 사당을 지었음. 이후 승려 쇼카이가 645년에 절을 세운 것이 센소지의 유래로 알려져 있음
- 에도 시대 후반에는 사원 내의 상점가와 연극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음. 그러나 관동 대지진과 2차 세계 대전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고 현재의 건물들은 1960년 이후에 재건한 것임
- 고려 승려 혜허(慧虛)가 그린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일본명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를 소장하고 있음

【 일본의 종교 】

▷일본에서 종교, 특히 불교나 신토 등의 전통종교는 한국처럼 개인마다 선택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와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종교에서 기원한 문화를 따르지만 그것을 종교가 아니라 문화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신토가 1억 2천만 이상(거의 100%), 불교 9천만 이상(거의 70%), 그리스도교 150만(1% 내외), 기타 신흥 종교 몇만 명이라는 희한한 결과가 나왔는데, 중복집계 때문에 종교인 숫자가 일본 전체 인구보다 많다.

❑ 노보리베츠 다테 지다이무라

◉ 주요내용

- 일본 역사 중 약 400년 전의 에도 시대를 테마로 하여 거리 풍경과 문화를 통째로 재현한 테마파크(우리나라의 민속촌과 비슷함)
- 에도 시대를 상징하는 닌자쇼, 사무라이쇼 등 일본의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관객 참여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전북도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 등과 같은 지역 역사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할 만한 탐방이었음

❑ 오타루 오르골당

◉ 주요내용

- 세계 각국의 모든 오르골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매장. 오타루에는 오르골당 본관과 오르골당 2호점이 있음. 본관은 매장들 중 가장 큰 규모로 1912년에 지은 오래된 2층 건물임
- 건물 앞에 서 있는 시계는 캐나다의 시계장인 레이먼드 샌더스가 만든 증기시계임. 이 시계는 그가 설치한 캐나다 밴쿠버 개스타운의 증기시계와 동일한 모델임. 5.5m의 증기 시계는 15분마다 증기를 방출하는데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음

Ⅴ 종합의견

○ 모에레누마 공원

-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을 친환경 공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관광명소가 된 모에레누마 공원의 조성사례를 살펴보고 도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
- 삿포로 지역 고유의 특징인 많은 눈을 활용한 냉방 시스템 및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 시설에 활용한 점은 탄소저감 실천 및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심속 공원의 선진 사례임

<전라북도 매립 완료된 쓰레기매립장 현황>

(2022년 9월 기준)

순번	시 군	매립장명	면적(㎡)	사용 기간	현 이용실태
합 계			503,477		
1	전주시	호동골	99,141	'95. 1 ~ '00. 5	양묘장 및 조경공원
2		서신 대체	50,925	'02. 4 ~ '04. 6	태양광발전시설(임대)
3		효자	16,000	'05. 5 ~ '06. 11	문학대 공원
4	군산시	하제	17,243	'93.10 ~ '98. 6	태양광 시설 설치
5	익산시	부송	70,715	'96.10 ~ '99.11	나대지
6		금강	13,700	'99.12 ~ '00.12	나대지
7		용안	54,964	'00. 6 ~ '03. 8	체육시설(야구장2, 족구장)
8	정읍시	영파	4,369	'96. 6 ~ '98. 8	태양광설치
9		태인	8,209	'95. 5 ~ '96. 1	나대지
10		감곡	5,363	'95. 4 ~ '98. 1	나대지
11		영파(비위생)	13,206	'89.6 ~ '95. 5	나대지
12		광역(1공구)	27,810	'99. 3 ~ '06.11	체육공원(야구장)
13	남원시	인월	9,933	'94.12 ~ '00. 7	체육소공원(게이트볼, 공원)
14		주생	29,064	'97. 1 ~ '06.12	생태공원
15		산내	1,575	'91.11 ~ '98.12	나대지
16		운봉	26,446	'01.01 ~ '02.12	차고지
17	김제시	순동	8,800	'93.11 ~ '95. 5	나대지
18		백학	5,827	'90. 5 ~ '91. 1	농경지
19		죽산	18,000	'84. 3 ~ '97. 5	나대지
20		흥사	1,887	'92. 9 ~ '93. 5	나대지
21	장수군	산서	2,000	'98. 7 ~ '12. 3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중
22	고창군	화산	1,900	'95. 1 ~ '07. 12	나대지
23		성송	5,300	'96. 1 ~ '07. 12	나대지
24		무장	2,300	'96. 1 ~ '07. 12	나대지
25		아산	2,800	'98. 1 ~ '07. 12	나대지
26		흥덕	2,800	'92. 1 ~ '00. 12	나대지
27		상하	3,200	'87. 1 ~ '00. 12	나대지

- 매립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주변지역 지하수검사, 발생가스관리(메탄가스, 이산화탄소혼합가스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 등 사후관리가 의무사항이며, 현재 이러한 환경안전 관리는 양국 모두 동일한 조건임

-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대표적 혐오시설을 사용종료 후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활용하는지의 관점에서는 전북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22년 9월 기준 전북 도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8개 시군 27개소 503,477㎡ 임

- 전북도의 경우에는 사용종료된 매장 27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된 상황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곳, 체육시설 3곳, 공원 3곳, 매립장 1곳 정비중임

- 앞으로 도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도 환경행정의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도내 곳곳에 15개소의 나대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립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전북도가 협의하여 사전에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함

- 한편,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포집공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도내 방치된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물질인 매립가스를 포집해 대기 중 확산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전북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 전북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삿포로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파악 및 우수사례 비교를 통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검토·반영하고자 함
- 삿포로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2년도 약 1,092억엔(약1조9백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0억엔(1천억원) 증가함
- 삿포로시청 장애인 취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삿포로시청 본관(1층)에 위치한 카페는 장애인들이 일할 기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이곳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과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줌

➡ 청사 내에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카페가 있다는 점은 우리 전북도청사 1층에 있는 카페와 유사함. 시민들이 자주 드나들고 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에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삿포로시 보건복지국장의 설명이 인상 깊었음

➡ 장애인 취업기회 장려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전반에 대한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전라북도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 우토나이 호수(면적 275ha, 평균수심 0.6m)는 많은 종류의 조류를 볼 수 있어 관광객과 홋카이도민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명소임
- 호수 주변이 풍부한 습지로 둘러싸여 있어 동식물의 보고이자 야생조류의 낙원으로 불리우며 270종 이상의 조류가 확인됨
- 일본의 국가 지정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4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임
- 3층짜리 조류 관찰 건물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철새들을 쾌적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우토나이 호수와 호수 주변에서 자연 산책·관찰 등 1년 사계절 동안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음
- 오리류나 백조류 등 철새에 있어서 중요한 중계지가 되고 있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귀중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음

➲ 습지는 수질오염 정화, 홍수 발생 완화,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형임. 인간을 위한 개발로 인해 습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습지를 보존하여 얻는 긍정적 효과들에 주목하며 람사르 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습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우리 전북 도내에도 고창·부안 갯벌, 고창 운곡습지 등의 습지가 있는데,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개발에만 치중하지 않으며 습지 보전 및 생태자원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가는 철새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연을 보전하며 나아가 생태관광 자원화한 우토나이 호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었음

➲ 전북도는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1시·군 1대표 관광지(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대표 관광지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Ⅵ 연수후기

1 소감

○ 강동화 위원

- 삿포로시에서 방문한 오도리공원은 시가지 중심을 동서로 길게 가로지르는 거대한 녹음지대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도심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높아 시민 누구나 쉽게 녹색 힐링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계절별로 다채로운 축제와 지역 특성을 살린 눈축제가 열려 관광 특수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서도 인상적이다.

- 오도리공원과 같은 도시 중심에 조성된 거대한 녹색 공원은 도시의 체질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북도에서도 도시숲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 이러한 도시공원들을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고층건물 사이의 녹색 오아시스와 같은 공원들이 많이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선사하고 랜드마크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김만기 위원

- 이번 국외연수에서 방문했던 홋카이도는 결코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가 주는 화려함이나 이색적인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었다. 단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과 소박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일본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나아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 고창의 운곡 습지와 같은 람사르 협약 습지인 토마코마이의 우토나이 호수는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일본인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 시코쓰토야 국립공원 중심에 자리잡은 도야호의 푸른 물은 정말 깨끗했고 주변의 숲은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했다.

-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에 자연환경의 보호와 보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이 되어야 하며, 고로 국립공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많은 전북도의 정책 방향에 있어 홋카이도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본 받을만 하다.

○ 박용근 위원

- 국외연수 중 삿포로 시청을 방문하여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일본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 들으며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취업 지원에 관한 기본 마인드를 알 수 있었다.

- 시청사 1층 로비에 있는 장애인이 고용된 카페에 대해서 ‘시를 대표하는 시청에서도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보건복지국장의 멘트가 인상 깊었고, 우리 도청에도 비슷한 형태의 ‘아이갓에브○○’ 카페가 있는데 우리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복지정책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 삿포로시의 장애인 취업 및 돌봄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우리 정책들과 비슷한 점들을 발견했고, 더불어 촘촘한 정책 방향은 향후 전북도의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요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 윤정훈 위원

- 이번 연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홋카이도의 자연환경과 지역발전이었다. 홋카이도 못지않게 우리 전북도에도 많은 국립공원과 해양관광지, 그리고 테마 관광단지가 존재한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은 홋카이도의 노하우(know-how)를 벤치마킹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 우선 홋카이도 지역 국립공원의 두드러진 특징은 천연 그대로의 자연경관과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매우 깨끗하고 청명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오타루 운하나 하코다테의 구시가지 등은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 리모델링을 통해 유지·보존하고 특색화한 것도 눈에 띄었다.

- 두 번째 전략은 홍보라고 본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유명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등 매체와 문화전략을 잘 활용하여 지역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 우리 지역도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환경 보호·보존과 K-문화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홋카이도의 사례를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임승식 위원

- 국외연수 내내 일본에서 받은 강한 인상은 식상할 수도 있으나 매우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7일 동안 방문한 모든 곳에서 일본의 청결함과 깨끗함을 엿볼 수 있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와 불쾌한 냄새나 불결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은 일본 일정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었다.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쓰레기 종량도 줄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높아보였다.

- 경제 수준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일본과도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을 대하는 태도나 의식 수준에 있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 부러움과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 했다. 기본에 충실한 일본이 왜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없는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시한번 깨달았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도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황영석 위원

-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방문한 삿포로시의 모에레누마 공원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를 도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 죽음의 땅이라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였고 생명의 땅으로 되살아나 주민들에게 되돌려진 좋은 사례가 되었다.

- 특히 모에레누마 공원은 홋카이도의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여 태양열과 눈을 이용해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이러한 성공적 사례는 향후 환경 혐오시설을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총평

국외연수를 마치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병 철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제12대 전북도의회를 개원하고 처음으로 가게 된 이번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연수는 일본 홋카이도와 도쿄 지역을 방문하여 환경·복지 시설을 탐방하고 우수한 일본의 선진 정책과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환경과 복지 관련 전북도의 발전에 적용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벗어나 타국을 견학하면서 환경복지위원들의 국제적인 시각과 정책적 안목을 육성하여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국외연수를 준비했다.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자리이므로 짧은 기간동안의 성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국외연수 설명회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고 우리 지역의 환경과 복지에 접목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시설들을 선정하여 6박7일간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일본을 떠올리면 먼저 경제대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현지에서 느낀 첫 인상은 청결함과 국민성이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문화, 소박하지만 합리적인 일본인들 생활방식, 청소를 하는 일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근면함이야말로 일본이 선진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저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이러한 문화와 시민의식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본다.

또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개발과 함께 보존·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홋카이도의 자연환경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으며, 초록의 숲과 파란 호수로 청정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이상기온에 따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 일상을 돌아봤을 때, 홋카이도의 자연은 개발에 따른 당장의 머니(money)효과 보다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철저히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하게 자리잡은 오도리공원의 수많은 꽃들과 나무는 삿포로시의 푸른 심장과 같았다. 삿포로에는 오도리공원이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듯, 전북 도심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녹색의 숲이 조성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한창 개발 시기에 만들어진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지가 지역의 흉물에서 지역의 명소로 변모한 것은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모에레누마 공원의 태양열과 눈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가동 시스템은 전북도의 기초단체 특성에 맞춰 기술적인 접목을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삿포로시의 보건복지국을 방문한 것도 뜻깊은 기회였다. 삿포로 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시설이나 돌봄서비스 등은 우리와 유사한 부분들도 많았다.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는 삿포로시 공무원들의 열정과 자세가 감동적으로 느껴진다.

7명의 환경복지위원들이 이번 일본 국외연수에 동행하였지만 각자 체득하고 느낀 것은 저마다 다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과 경험들이 어우러져 앞으로 전북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의 시너지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본 국외 연수가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국외연수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궂은일을 도맡아 주시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환경복지전문위원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 언론보도 자료

全北日報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014면 사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일본 방문 국외 정책연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간 환경복지위원들은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이강모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 환복위, 국외 정책연수 벤치마킹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습지 공원인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해 공원 안내 DVD 시청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친환경적인 관광 명소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 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 · 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 · 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현표 기자hiphopy@naver.com